

K-관광섬 육성 사업, 흑산도 파시(波市)가 돌아온다

자치CEO

김대인

신안군수 권한대행
부군수



한반도 서남단 바다 위, 검은 산처럼 떠 있는 섬. 흑산도는 그 이름만큼 강인하고 그 역사만큼 파란만장한 섬이다.

이곳은 조선의 충신들이 뜻을 묻은 유배의 땅이었고, 동시에 바다를 품은 어민들의 생계터전이었다. 어선들은 섬어기마다 섬으로 물러들었고, 바다 위엔 자연스레 시장이 섰다. 파도 위의 시장, 파시(波市). 그곳은 단순한 어시장이 아니라, 어민의 희망과 바다의 시간을 주고받는 '삶의 교차로'였다. 연평도, 위도와 함께 서해 3대 파시였다는 흑산 파시의 찬란한 기억이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며 유통의 변화와 도시화의 물결은 이 기억을 밀어냈다. 조업선 대신 페리만 오가고, 섬어기마다 들리던 고함소리도 찾아들었다. 섬은 점점 조용해졌고, "흑산도 아가씨"와 장삼이사들은 물을 그리워하며 떠나갔다.

그러나 신안군은 다시 한번 흑산도를 기회의 섬으로 부상시키려 한다. 2023년 문화체육관광부의 'K-관광섬 육성사업'에 흑산도가 선정되면서 2026년까지 100억 원을 투자하겠다는 계획이다.

흑산 예리항을 중심으로 체험형 어촌 공간, 해양생태관광지 등 섬 정체성을 살린 콘텐츠를 개발하고, 체류형 관광지를 조성한다. 단순한 관광지 개발이 아니라 파시를 현대적으로 재현해 복합문화 공간으로 만들고, 유배문화를 바탕으로 인문관광의 공간으로 변모시킬 계획이다.

'유배의 땅'과 '파시의 섬'이라는 이질적 기억은, 관광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로 엮인다. 이것이야말로 다른 섬에서는 볼 수 없는 흑산만의 정체성이자 차별점이다.

자산어보캡کم(레지던시·한달살이 프로그램 등), 탐조관광·해상관광 등 관광 자원과 콘텐츠를 개발하고, 숙박, 모바일 등 서비스 편의성을 개선하는 사업들도 추진한다. 이미 지난 24년부터 기본계획, 설계 등 수반 용역에 착수해 진행 중이다.

마침 정책환경도 우호적으로 변하고

있다. 흑산공항 건설사업은 2029년 개항을 목표로 타당성재조사에 착수했다. 오랜 공을 들였던 공항사업이 진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흑산공항이 개항되면 흑산도도 일일생활권에 편입되며 획기적인 변화가 예상된다. 하루면 닿을 수 있는 흑산도에서 사람들은 '바다 위 파시'와 '산길의 유배' 흔적을 모두 만날 수 있게 된다.

또한 2024년 제정된 '울릉도·흑산도 등 국도외곽 먼섬 지원 특별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행안부에서는 '국도외곽 먼섬 종합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흑산도·다도도·대둔도·장도·영산도·태도·만재도를 비롯한 흑산권역 섬 주민들의 삶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되는 부분이다.

이렇듯 흑산도를 둘러싼 정책여건이 무리없는 가운데, 우리 신안군은 찬란했던 흑산도의 기억을 재현하려 노력하고 있다. 단지 관광객이 '오느' 곳 아니라 사람과 기억, 기호가 '머무는' 섬 흑산도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지역민과 함께 도읍단계에 나서고 있다. 이제 흑산 바다에 다시 장이 섰다. 일렁이는 파랑, 그 물결 위에 흑산 파시가 돌아오고 있다.



기고 | 이기연 전남대 RISE사업단 지역협력센터장·교육학박사

지역 교육혁신의 허브 전남대학교 RISE 사업단

이재명 대통령의 교육정책은 국가 책임 강화와 지역맞춤형 인재육성을 핵심으로 한다. 초·중·고 국가책임 공교육 강화, 돌봄 확대,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AI 교육 강화 등은 단순히 학교 현장 개선을 넘어, 지역사회와 대학을 망라한 교육 전 영역의 혁신을 예고한다. 특히 'AI 시대를 주도할 미래 인재 육성'을 강조한 이 대통령의 비전은, 2025년 전면 시행된 RISE(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 사업과 완벽히 결을 맞춘다고 할 수 있다. 정부 주도로 AI 인프라 확대와 공교육 혁신을 이루려는 정책 방향은 지자체 주도·지역 맞춤형 대학 지원 체계를 구축하려는 RISE의 목적과도 맥이 닿아 있다.

광주광역시도 산업·문화·복지·정주 문제를 교육과 연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려는 RISE 기본계획을 추진 중이다. '지역정주형 인재양성', '창업·실증 지·산·학·연 협력 생태계', '집단지성으로 지역현안 해결', '직업·평생교육 확대' 등을 주요 목표로 설정했고, 지난해부터 대학·시교육청·기업·연구기관 등과 폭넓은 협의체를 구축해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행력을 갖추고 있다. 광주시는 지방 소멸 위기 대응, 지역 산업 고도화, 청년·신규 인구 흡수와 정착의 '4중 과제'를 안고 있다. 이 과제를 교육과 연계한 실질적 교육 지원 시스템으로 해결하려는 RISE 사업은 단순히 대학 경쟁력 제고를 넘어 지역 전체의 지속가능발전 전략이다.

이근배 전남대 총장은 "지역과 동행하는 전남대의 모습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실질적 변화와 성과를 만들겠다"며 RISE의 존재 의미를 강조하였고 "지역이 키우는 대학, 대학이 살리는 지역"이라는 비전을 제시하였다. 전남대학교가 지역 내에서 차별성을 갖기 위해선 단순 지원자가 아닌 '거버넌스 리더'로서의 역할이 중요하다. 즉, 지역과 대학 간 MOU를 넘어서 공동 R&D, 창업 실증 프로젝트, 평생교육을 연계한 지역사회 활성화 프로그램

등을 직접 설계·운영하여 지역 경쟁력을 키우는 주체로 나서야 한다. 또한 AI·디지털 혁신 기술을 대학 교육 체계에 통합했던 문제인 정부 시절 AI 교육 확대 기초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글로벌 수준 AI 인재 양성고 연계한 교육 플랫폼을 구축한다면, 전남대 RISE 사업은 단기 성과뿐 아니라 중장기 혁신 거점으로 도약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대학 내부적으로는 인문·사회·공학 등 다학제 간 연계·융합 프로그램을 활성화하고, 지역민 대상 평생교육을 지원함으로써 정주여건과 문화 인프라의 결합을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통해 전남대는 '배움과 삶이 만나는 지역의 중심축'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전남대의 경쟁력은 RISE와 글로벌대학30 사업의 시너지에서 비롯될 것이다. AI·문화융합을 주제로 한 글로벌대학30 예비지정과 RISE 사업의 동시 선정은 혁신 인프라 구축에 탄력을 줄 것이다.

새 정부의 교육 정책은 공교육 내실화와 AI 인재 육성, 교육복지 강화 등 '지역 혁신형 교육 생태계' 구축을 지향한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광주광역시의 RISE 사업은 국가 정책 방향성과 지역 수요를 연결하는 중요한 전환점이다.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은 이 시스템의 전략적 '허브'이자 '실행자'로서, 지역 산업·사회와의 협력 모델을 성공적으로 구현하기 위해 지역 기반 산업·산업 수요에 맞춘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 평생직업교육과 AI 융합 시스템, 그리고 지역민과 대학이 함께 성장하는 거버넌스 플랫폼 구축 등을 추진 중이다. 이러한 전남대의 비전이 현실화될 때, 광주광역시는 진정한 지역 혁신 중심으로 나아갈 수 있고, 이재명 정부가 그리는 'AI 미래 인재 국가'로의 도약도 실질적 기반 위에 올라서게 될 것이다. 대한민국 지역균형발전의 새로운 패러다임과 지역-대학 상생 모델을 제시할 전남대학교 RISE사업단이 주목받는 이유이다.

독자투고

학기 초, 부모님들의 관심과 걱정을 안고 첫 등교를 했던 초등학교 저학년 학생들이 6월에 접어들면서 학교 적응기가 지나 대부분 혼자 등·하교하는 학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럼에 따라 이 저학년 학생들이 모든 범죄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특히 아동 유괴 범죄에 대해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합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우리나라 아동을 대상으로 한 유괴 범죄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대검찰청 연도별 유괴범죄 분석에 따르면 2020년 223건(13세미만 113건)을 시작으로 2023년에는 349건(13세미만 204건)으로 약 5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 발생시간도 확인해보니 12시부터 18시 사이, 즉 하교시간에 가장 많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동 약취·유인 범죄 증가, 경각심을 가져야 할 때

이러한 범죄들은 그럼 어디서 일어날까요? 70% 이상이 노상과 주거지 근처였습니다. 아이들이 평소 다니는 길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범죄를 어떻게 예방해야 될까요?

첫째, 낯선 사람이 말을 걸거나 무언가를 주거나 보여준다고(애완동물 등) 해도 절대 받지 않기.

둘째, 모르는 사람이 도와달라고 하거나 부모님이 대신 데리러 왔다 해도 따라가지 않기

셋째, 길을 묻는 낯선 사람에게는 가까운 어른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절대 혼자 안내하지 않기

넷째, 하교 후 곧바로 귀가하고, 인적이 드문 골목이나 공터는 피하기

다섯째, 위급 상황에서는 큰 소리로 "안돼요!", "도와주세요!" 외치고 가까운 가게나 건물로 피하기

여섯째, 휴대전화가 있다면 112 또는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하기

아이들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성인에 비하여 인지력과 판단력이 떨어져 유괴에 대처하기 힘듭니다.

이 때문에 어른들이 아이들을 단단히 그리고 반복적으로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얼굴 한 두번 본 대충 아는 사람들도 조심하도록 주의를 시켜야 합니다.

아이를 키우는 것은 가정의 일이지만, 아이를 지키는 일은 사회 전체의 책임입니다. 정부·교육기관·지역사회 그리고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힘을 모아 아동 유괴를 예방할 수 있는 안전한 환경을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의 생명을 지키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주변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관심을 가져야 할 때입니다.

문수성 <여수경찰 기동순찰대 경사>

진일보

진일보는 전남일보가 제공하는 뉴스서비스입니다. 한발 빠르게 정확한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많은 의견과 제보를 바랍니다.



보약·홍삼은

40년 오직 한 길!

북교당 한약방

6년근 홍삼 100% 60포 ▶▶ 15만원 (주문판매)

홍삼 검사품 생산지 직거래로 저렴합니다 농협 653-1200-3100 (예금주 박주환)

미세먼지 예방 (기관지 보호)

도라지 오미자 삼백초 한 박스 50포 ▶ 5만원

무릎 관리 활기찬 삶! 산수유 두충 60포 ▶ 12만원

天下보다 귀한 생명!

성인병 노화방지는 적절한 운동과 마음의 편안, 음식조절입니다.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776-12 (광주새우리병원 건너편 2층) 062)369-9227